덕유산 절경을 품은 무주구천동천 지방하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7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5억 원을 지원받게 됐다.

무주군, 하천사업비 125억원 받아

설천면 덕유대 캠핑장~원당천 합류 지점까지… 치수 · 친수공사 진행

덕유산 절경을 품은 무주구천동천 지방하천사업이 국토교통부에서 주관한 2017 하천사업 제안 공모에 선정돼 국비 125억원을 지원받게 됐다.

무주군은 이번 공모에서 사업구간의 중요도와 사업계획의 우수성, 실현가능성과 사업추진체계 등에서 높은 점수를 받은 것으로 알려졌다.

덕유산 절경을 품은 무주 구천동천 지방하천사업은 총 사업비 250억 원(국비 125억 원, 지방비 125억 원)이 투입되는 사업으로, 군은 설천면 덕유대 캠핑장에서 원당천 합류 지점까지 연장 1.97㎞에 대한 치수와 친수공사를 진행하게 된다.

이 과정에서 무주군은 제방정비(0.89㎞)와 교량(경관교량 2개소 포함 총 5개소) 재 가설을 통해 집중호우 등 자연해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예방하고, 월하생태놀이 숲과 덕유물빛 쉼터, 삼공어울문화마당, 구천생태방수로 습지, 산책로 및 자전거 길(3.6㎞) 등을 조성해 지역주민과 관광객의 이용편의를 도울 예정이어서 기대를 모으고 있다.

무주군청 안전재난과 박은석 하천방재 담당은 "이번 공모선정으로 사업이 탄력을 받게 되면서 무주지역 경제를 활성화시키는 것은 물론, 구천동 지역을 다시 찾고 싶은 관광지로 만드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를 한다"며 "무주구천동천의 우수한 생태, 문화, 관광콘텐츠를 기반으로 안전하고 건강한 하천이라는 새로운 하천가치를 창출할 수 있도록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밝혔다.

/무주=전문선 기자

진안군,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추가 신청 접수

6월 30일까지… 읍 · 면사무소의 산업팀에 방문 신청

진안군은 오는 6월 30일까지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추가 신청을 받는다.

2017년 여성농업인 생생카드 신청은 현재 2차 접수가 완료된 상태이며 현재는 3차 접수를 받는다.

여성농입인 생생카드 지원사업은 전라북도 도정 핵심사업인 삼락농정 추진의 일환으로 도내 여성농업인에게 문화·복지 분야에서 쓸 수 있는 생생카드(기프트카드)를 지원하는 사업이다.

신청요건은 만 20세에서 24세까지의 기혼 여성농업인과 만25세 이상 65세 이하의 여성농업인으로 농업 이외의 전업적 직업이 없어야 하고, 가구당 농지소유면적이 5ha 미만인 농가 또는 이에 준하는 축산·임업·어업경영가구의 여성농업인이면 읍·면사무소의 산업팀에 방문 신청하면 된다.

생생카드는 읍·면사무소를 통해 대상자로 확정받은 여성농업인이 농협 진안군지부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사용가능 금액은 12만원이며, 이중 10만원을 지원한다. 자기부담금 2만원은 카드발급 시에 납부하면 된다.

이 카드는 미용실, 안경점, 목욕탕, 화장품점, 영화관, 서점, 여행사 등 여성농업인의 문화·복지에 관련된 25개 업종에서 사용이 가능하고 연 1회에 한하여 매년 신청할 수 있다.

군 관계자는 "아직 시행 초기인 사업으로 여성 농업인 신청자가 누락되지 않도록 이장회의, 직원 출장, 홍보물 게시 등 적극 홍보해 나갈 계획이다"고 밝혔다.

진안군은 1차, 2차 접수를 통해 683명이 신청하여 대상자를 확정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주군, 간식 품평회 개최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겨냥

무주군이 2017 무주 WTF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를 앞두고 개발에 주력해온 간식 먹거리에 대한 품평회가 25일 농업기술센터 명품화교육장에서 개최됐다.

이날 행사에는 황정수 무주군수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조직위원회 이종석 사무총장을 비롯한 무주군청과 조직위 관계자, 그리고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했으며, 참석자들은 떡볶이와 닭 강정, 깻잎 모듬 튀김, 인삼식혜, 호두과자, 호박죽, 양꼬치, 토스트, 씨앗호떡 등 30여 가지 간식에 대한 설명회와 시식, 품평회에 함께 했다.

황 군수는 "여러분의 땀과 노력이 배어 있는 간식 먹거리가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는 물론, 무주관광의 품격과 만족도를 높이는 시작이 됐으면 하는 바람"이라며 "오늘 선보인 간식들이 내달 2일부터 개최되는 산골영화제와 24일 막을 올리는 세계태권도선수권대회, 그리고 매주 토요일 열리는 야시장과 8월 29일부터 개최되는 반딧불축제에서도 큰 사랑을 받을 수 있도록 더 나은 맛, 더 나은 위생, 더 나은 친절을 구현하는데 주력 해달라"고 말했다.

군은 2015년부터 총 20회에 걸쳐 전문가 초청 간식 먹거리 개발 교육(메뉴개발, 조리법 교육, 재료 및 조리기구 지원 등)을 진행해왔으며 지금까지 관내 농업인과 다문화가정, 자활사업단, 생활개선회, 연구회 등에서 50여 명이 참여해 전류와 가스, 꼬치, 피자, 주스류 등 5개 품목에 대한 30여 가지 간식을 개발한 것으로 알려졌다.

군에 따르면 간식 먹거리 참여자들은 군에서 개최하는 축제와 야시장 등 각종 행사 간식부스에도 참여해 개발 간식들을 관광객들에게 선보이고 있다.

무주군 농업기술센터 곽민채 자원경영 담당은 "대한민국 대표 관광지, 세계 태권도성지에 걸 맞는 먹거리 문화가 조성될 수 있도록 노력을 하고 있다"며 "군이 키운 농·특산물로 무주사람들이 만든 맛있는 간식이 국내외 관광객들의 입은 물론, 마음까지 충분히 즐겁게 해줄 것으로 기대를 한다"고 전했다.

/무주=전문선 기자

장수군 산림녹지과-농업기술센터, 협업방제 추진

장수군 산림녹지과는 돌발해충 확산 방지를 위해 6월 2일까지를 예방방제 기간으로 정하고, 농업기술센터와 협업방제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돌발해충은 갈색날개매미충, 미국선녀벌레, 꽃매미 등이며 최근 농경지와 산림지역에 발생해 농작물에 피해를 주고 있어 농경지와 산림지역을 동시에 방제할 계획이다.

이들 돌발해충은 이동성이 좋아 산림의 활엽수와 농경지의 사과, 배, 복숭아, 포도 등 농작물에 큰 피해를 주며,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를 적기에 동시 방제해야 효과가 크다.

돌발해충은 5월부터 알에서 부화해 10월까지 활동하며 나무 수액을 흡착해 가지를 고사시키거나 분비물로 과일이나 잎에 그으름병 피해를 줘, 농경지와 인근 산림지역까지 이동해 서식하는 특성이 있다.

김재흥 산림녹지과장은 돌발해충으로 인한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농경지·산림 등 기관 간 협업방제를 통해 돌발해충의 유입 및 발생 차단에 힘쓰고,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협업방제를 확대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장수=고판호 기자

장수군,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 추진

장수군은 최근 기후변화 등으로 평균기온이 상승하고 폭염특보 발령 빈도가 증가 할 것으로 예상됨 따라 더위에 취약한 어르신들의 안전을 위해 경로당 에어컨 지원 사업을 4월부터 5월까지 추진했다.

이번 사업은 군예산 3억 2천만원을 들여 관내 경로당 236개 건물(273개소 경로당) 중 에어컨 미보유 경로당 205개소에 에어컨을 설치해 주는 사업이다.

여름철 폭염으로 사각지대에 놓여있는 어르신들이 조금이나마 더위를 식히고 시원한 여름을 보낼 수 있도록, 에어컨 설치를 적극적으로 추진했다.

/장수=고판호 기자

지역 소식통

장수보건의료원, 금연의날 캠페인

장수군보건의료원(원장 위상양)은 25일 장수읍 시장 일원에서 금연의 날 캠페인을 실시했다.

이날은 제30회 세계 금연의 날을 맞이해 장수군보건의료원 직원 20여명과 (사)대한노인회 장수군지회 재능나눔활동참여자 38명이 참여한 가운데 "담배, 오늘 끊지 않으면 내일은 없습니다"라는 슬로건으로 흡연이 건강에 미치는 영향 및 담배경고그림삽입, 금연구역확대 시행 등 각종 금연정책에 대한 홍보를 실시했고, 흡연자를 대상으로 한 이동금연클리닉을 실시했다고 밝혔다.

장수군보건의료원은 앞으로도 흡연자의 금연클리닉 등록 활성화 및 금연환경조성을 위한 금연구역 지도점검을 강화하는 등 지역사회 내 흡연율 감소에 노력할 방침이다. /장수=고판호 기자

진안군, 주민자치 참여방안 논의

진안군은 25일 읍·면 주민자치 위원장과 평생학습지도자 22명이 참석한 가운데 주민자치센터별 운영에 대한 추진 상황을 공유하고, 2017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개최 등에 대한 간담회를 군청 상황실에서 가졌다.

이번 간담회는 주민자치센터를 통해 변화하는 진안과 평생학습고을로의 발전을 위해 각 읍·면의 주민자치센터 및 평생학습 운영현황 등을 청취하고, 2017년 주민자치위원 역량강화교육 개최 시 주민자치 위원의 적극적인 역할을 통해 주민들의 자발적이고 능동적인 참여방법 등이 모색되었다.

/진안=우태만 기자

무진장소방서, 정신건강 간담회

무진장소방서(서장 조용주)는 지난 24~25일 이틀에 걸쳐 소방공무원을 대상으로 정신건강 간담회를 추진했다.

해마다 증가하는 PTSD(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인해 고통 받는 소방공무원을 위하여 조용주 무진장소방서장 비롯하여 약 180여명이 참가한 가운데 개최된 이번 간담회는 이미옥 필드립심리상담센터 소장 주재로 "소방공무원 PTSD의 이해와 관리"라는 주제로 무진장소방서 3층 대회의실에서 약 2시간 가량 진행되었다. /무주=전문선 기자